



5강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 4:1~42 사마리아 여인과 사람들의 믿음

1-8절 서론적 이야기

9-26절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질문과 대답 구성)

a 질문(9) / b 대답(10)

a 질문(11-12) / b 대답(13-15)

a 질문(16) / b 대답(17-18)

a 질문(19-20) / b 대답(21-24)

a 질문(25) / b 대답(26)

27-42절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

구조

A 가나의 첫 번째 표적과 제자들의 신앙(2:1-12)

B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2:13-25)

C 예수님과 유대교의 선생 니고데모의 대화(3:1-21)

D 세례 요한의 증거(3:22-36)

C'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4:1-38)

B' 예수님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긍정적인 반응(4:39-45)

A' 가나의 두 번째 표적과 온 가족의 신앙(4:46-54)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조 “하늘과 땅 차이” but...

니고데모(최고 높은 봉우리)	사마리아 여인(가장 낮은 골짜기)
남자	여자
유대인	사마리아인
율법에 정통한 교사	율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감	낮에 예수님이 찾아가심
도덕적 존경 받는 인물	도덕적으로 부정함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니고데모 : 많은 것을 누리고 가져도, 인간의 노력과 자격과 열심,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음

#사마리아 여인 :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함, 허기, 아무리 배우자를 바꿔도 만족할 수 없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며 완성되는 것이다.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다.

Q.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시는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요4:1-3)**

1.세상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신다
환대의 자리, 환호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떠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Q.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시는가?

2.이사야의 예언 :사망의 땅에 빛(복음)을 비추시기 위해서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사9:1-2)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요4:4)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다.

유대인에게는 위험한 길(강도)이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벳산으로 올라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 서쪽 지역으로 넘어갔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길이었지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 6일이 걸림.



Q.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가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4:34~35)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신다. 언제 사마리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가?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행8:4-6)

대화의 배경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요4:5-6)

1.수가의 옛 이름 : 세겜

1)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제단을 쌓은곳

2)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

2.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신 예수님 :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3.**때가 여섯 시** : 유대식으로 하면 낮12시, 로마식으로 하면 저녁 6시

대화의 장소 : 우물가

왜 우물가에서 만나셨을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곳(창24:13-15)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창29:2-6)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만난 곳(출2:15-17)

: 구약에서 우물가는 신부를 만나는 장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적인 신랑으로 오심.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렘3:14)

이상한 만남 :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요4:9)

왜 상종하지 않을까?

1. **혈통의 문제** : 북이스라엘이 주전722년 앗수르에 멸망, 이방인 이주 정책

2. **종교적 갈등** : 알렉산더 대왕 때 사마리아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건립,
프톨레미2세 때 유대 학자들이 사마리아 학자들을 살해, 주전 2세기 하스모니안 왕조 힐카누스가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함

사마리아 사람들의 네 가지 믿음

1.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다
2. 하나님은 오직 모세, 단 한 명의 예언자를 보내주셨다
3.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모세 오경(사마리아 오경)으로
예언서, 역사서, 성문서 인정하지 않음
4.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배의 성소는 그리심산**이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

‘상종하다’라는 단어에는 ‘함께 사용하다’라는 뜻이 있다.

복음이 없는 곳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차별이 있고 장벽이 있다. 배제가 있고 소외가 있다.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은 차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역사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고, 샬롬이 이루어졌다. 그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무너졌다. 초대교회는 서로의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
사도행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
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요4:10)

Q.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2:38)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행
11:17)

사마리아 여인의 '물'과 예수님의 '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요4:11) : 육적인 물, 마시는 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3-14) : 영적인 물, 성령

에스겔 36장 25절, 이사야55장1-2절, 요한복음 7장 37-39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은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함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에게 율법과 성전도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함
혼인잔치의 떨어진 포도주처럼 그들 모두에게 공허함이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니고데모처럼 밤에 예수님을 찾을 것이고, 사마리아여인처럼 남편 6명을 만났어도 한 낮에 우물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요4:16)

Q. 왜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을까?

이 여인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다. 나dana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것을 아신 것처럼 사마리아여인이 왜 한 낮에 우물가에 나와야 하는지, 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지 아신다. 그녀가 남편을 다섯이나 바꾼 것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을 직면하게 하신다.

“너는 너의 목마름을 남편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더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
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사12:2-3)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와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요4:18)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위치 : 법적 지위가 없음.

남편이 없는 이 여인에게 ‘내가 남편이 되어줄게’ 다가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녀의 목마름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녀의 버림받음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셨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요19:14)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요4:19)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지자 '모세',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 '모세오경'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신18:18)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묻는 질문 :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 자신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묻는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 예배의 장소문제(20절)

사마리아인 - 그리심산 vs 유대인 - 예루살렘

예수님의 답변

-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니다(21절)
-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21절)
-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23-24절)

Q.왜 장소가 중요하지 않을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허물어지고,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성전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벰엘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실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실 것이다.

(속죄제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
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3-24)**

새 창조, 새 시대의 예배는 성전의 제사도 아니고, 정결예식도 아니고, 율법도 아
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Q.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영은 '생수', '성령'을 뜻한다.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
가는 것이 예배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
이다: 로마서 12:1-2 거룩한 산 제사, 와 보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요4:25-26)

에고 에이미 : “나는 ~ 이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소개하신 이름

“당신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 : 물동이를 버리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요 4:28-29)

물동이를 버렸다는 의미

1. 육신의 목마름보다 영적인 목마름을 택하다
 2. 그녀에게 필요한 생수는 물동이기가 필요 없는 생수였다
 3. 예수를 만난 후 여인의 삶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 엘리사가 소와 쟁기를 버려 두고,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마태가 세리의 책상을 버리고!
- 예수님의 말씀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여인은 영적인 신량을 만나 변화되었다

와서 보라!

복음은 흘러가게 된다. 선포되어진다. 이웃과의 담을 허문다. 관계를 회복시킨다.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는 예수를 만났다는 감격과 기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도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와서 보라!

우리의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소리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 : 요한복음의 저자가 독자에게 기대하는 반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요4:39-42)

세상의 구주 : 율리우스 시저에서 하드리아년까지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쓰인 호칭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선포한다.

요한복음이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반응 : 믿음=영접=앎=순종